

3강

- <삼승할망에게 굴복한 마마신(媽媽神),
대별상마누라의 내력- '마누라본풀이' >

<삼승할망에게 굴복한 마마신(媽媽神), 대별상마누라의 내력- ‘마누라본풀이’ >

류진옥(제주학연구소 연구원)

인류의 오래된 전염병, ‘두창(痘瘡)’.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마누라본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욱 의미있게 여겨집니다. ‘마누라본풀이’는 ‘천연두’를 관장하는 신격(神格)인 ‘대별상마누라’에 대한 본풀이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주로 ‘두창(痘瘡)’이라 불렸던 천연두는 지난 시기 인류에게 다가왔던 많은 전염병 중 대표 격에 속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전염병으로 ‘괴질(怪疾)’이라 불렸던 ‘콜레라’가 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증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죽어가는 것을 보고 ‘괴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이후 ‘호열자’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1920년 전국적으로 유행한 호열자 중 제주도가 병독이 가장 심한 곳으로 지목되었다는 기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¹⁾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전염병은 갑자기 출몰하여 그것의 실체를 인식하기 전에 수많은 인류의 목숨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과거의 전염병 또한 한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콜레라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번져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²⁾ 이와는 달리 천연두는 그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오래된 질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석영이 종두법을 배워 국가 차원의 우두법을 시행한 것이 1885년이니

1) “제주도에서 보균자논업섯다, 작년여름에 호역으로 인하여 전멸이 되다십히호 전남제주도(濟州島)는 도선 전도에 데일 호열증병독이 뽕후호 곳으로 지목되는데 도당국에서는 경무국의 지시로 지난번 그셔음년의 작년 가을의 환자 와밧 그가죽 빅명에 대하여 호열증군의 검변도사를 행하였는디 작년 가을에 쇼독을 완전히호 식답인지 한명의보균 자도 발견치못하였더라”

[출처 :매일신보, 1921년06월07일 3면, 「호균의 검변조사(虎菌의 檢便調査)」]

2)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2013, 146쪽 참조.

고려에서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천연두는 특정한 치료법 없이 두려움의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천연두는 오랜 기간 의학적 다스림이 아니라 무속적 금기를 통한 다스림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에는 두창신(痘瘡神)을 중히 여기는데 그 금기의 골자는 제사·초상집 출입·연회·성생활·외부사람·기름과 꿀·비린내와 누린내·더러운 냄새를 금기하는 것이며 이것들은 의방(醫方)에도 기재되어 있다. 대개 두창은 누에처럼 사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어찌다가 그것을 범하면 죽거나, 아니면 열에 여섯, 일곱은 위태하다는 것이다. 만약 목욕하고 기도하면 거의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믿고 지성으로 받든다. 심지어 나가고 들어오는 때는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고하기까지 했으며, 두창이 끝난 지 1, 2년 뒤에도 제사를 꺼렸다. 비록 선비라 하더라도 풍속에 구애되어 심지어 제사를 폐하기까지 했다. [어숙권의 『패관잡기』]¹⁾

세속에서 아이들의 질병에는 신이 관계한다 하여 받들어 섬기는 것이나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으며, 오로지 기도만 일삼고 약을 쓰지 않는다. [유몽인의 『어우야담』]²⁾

약을 쓰면 오히려 ‘두창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금기를 엄격히 지킨 것은 민간에서만이 아니었으며, 왕실에서도 쉼 내에 술과 고기를 금하고 세조의 경우는 모든 정사를 중단하는 등 금기를 엄하게 지켰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다수 남아있습니다.³⁾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과거 천연두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 전국의 무속 의례 곳곳에 천연두신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의례로 남아있습니다.

1) 이능화, 『조선무속고』, 창비, 2013, 362~363쪽.

2) 이능화, 『조선무속고』, 364쪽.

3)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170쪽 참조.

제주의 두창신(痘瘡神)

제주의 두창신은 ‘얼굴 차지’ 신입니다. 하늘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산을 차지하는 등 인간 사는 세상 곳곳을 차지한 여러 신들 가운데 두창신은 인간의 얼굴을 차지하는 신입니다. 제주의 무속신 중 일반신으로는 유일한 질병신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성신으로 설명되는 다른 지역의 두창신과 달리 제주의 두창신은 남성이며, 또한 작은마마(홍역)를 담당하는 부인과 함께 부부신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약칭으로 보통 ‘마누라(마마)’라고 하는 영웅적男神이라 관념된다. ‘홍진국대별상’은 夫神, ‘서신국마누라’는 妻神이라 하기도 하고, 전자는 천연두신, 후자는 작은마마(紅疫)신이라 하기도 한다. 큰굿 때의 개별 의례는 없으나, 마마를 한 후 ‘마누라배송’이라는 의례를 하며, 신화는 산육신 신화(産育神 神話) ‘삼승할망본풀이’의 일부로 의례 때에 昌된다.¹⁾

제주 무속 안에서 갖는 두창신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 위의 글과 같이 대별상마누라 부부신과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하는 신직(神職)을 가진 산육신 삼승할망이 ‘미누리본풀이’에 있어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신격입니다. 생명 탄생과 그에 대한 위협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본풀이의 전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생명 존중에 대한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마누라본풀이

마누라본풀이는 첫 대목부터 삼승할망과 대별상이 만나고 대립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흐를(一日) 천맹(千名) 생불을 주고 흐를 만맹 환생(還生)을 줄”²⁾ 할마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인간 생명의 꽃밭인 서천꽃밭에 있는 서천강의 다리를 건너 인간 땅에 내리고자 합니다. 하루 천 명의 생명을 점지하고

1)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집문당, 1986, 153쪽.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05쪽.

하루 만 명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 삼승할망의 신직입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바빠 나서는 길에 멀리 멀들어진 고관의 행차가 보입니다.

“앞원 영끼(令旗) 뒤인 몸끼 영서끼(令司旗) 파랑당돌영끼 별련뒷게(別輦獨轎) 쌍가메(雙駕馬)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거느리고”¹⁾ 위풍도 당당하게 행차하는 대별상마누라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엔 ‘인물도감책(人物都監冊)’이 들려져 있습니다. “만민(萬民) 족손(子孫)에 호명을 주저”²⁾ 정리한 아이들의 명단입니다.

할마님은 아이들 명단을 들고 위세 등등하게 행차하는 대별상을 보고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청을 합니다. “대별상님아 저가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준 족손에 고온 얼굴로 호명하여 주십시오.”³⁾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별상의 오만하기 그지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뿐이었습니다. 대별상은 ‘봉에눈(鳳眼)’을 부릅뜨고 삼승할망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예성(女性)이라 흐는 건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邪物)인디 남즈(男子)의 대장부 행춧질(行次路)에 사망(事望)흐 예성(女性)이라 흐게 웬일이냐? 꽤쌌흐다.”⁴⁾ 대별상이 삼승할망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어서 한 일이 아이들의 얼굴을 ‘두용박’ (뒤용박)이 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할마님은 이러한 대별상의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별상의 흐는 짓이 꽤쌌흐구나. 나신디도 흐번 굴복스정(屈服事情) 흘 때가 이시리라.”⁵⁾ 즉, 대별상이 와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할 일을 결심한 것입니다.

할마님은 바로 대별상의 처인 ‘서신국(西神國)마누라’에게 생불꽃을 들어 새생명을 점지합니다. 아이를 점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 세상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할마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대별상을 혼내려는 마음에 할마님은 서신국마누라의 해복(解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열 달이 지나고 열두 달이 넘어도 해산하지 못하는 서신국마누라는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남편인 대별상을 불러 할마님을 청해 모셔오라고 합니다.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5쪽.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5쪽.

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5쪽.

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5~106쪽.

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6쪽.

“남즈(男子)의 대장부가 어찌 예성(女性)을 청하레 가리야, 흐주마는 마누라가 죽게 됴염시니 혼번 가보저.”¹⁾ 대별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사경을 헤매는 처를 생각하여 큰 결심을 하고 삼승할망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격이 시작됩니다.

백망건(白網巾)에 백도포(白道袍)를 차려입고 마부(馬夫)를 거느리고 말을 탄 대별상이 할마님 앞에 찾아갔지만 할마님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대별상은 땃돌 아래로 양무릎을 꿇고 엎드려 청합니다. 그제서야 눈길을 준 할마님은 대별상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날 너의 집의 청하고 싶으거들랑 어서 바빠 돌아강 대공단고칼로 머리 삭삭 가까두고 혼 침 질른 굴송낙 둘러쓰고 두 귀 누른 굴장삼(長衫) 둘러입엿 멘보선 바랑에 이이 알로 왕 업대흐민 내가 가리라.”²⁾ 대별상에게 중의 복장을 하고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청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대별상은 다른 방도가 없어 삼승할망의 조건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의 복장을 하고 다시 삼승할망을 찾아가 땃돌 아래 엎드린 대별상에게 그제서야 할마님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만흐난 하늘 노프고 땅 느자운 줄 알겠느냐? 뛰는 제주가 좋댕 허여도 느는 제주가 싯젠 허여라.”³⁾

“예, 과연 잘못허엿수다.”⁴⁾

그제서야 할마님은 대별상에게 서천강에서 대별상의 집까지 온갖 명주천으로 길을 놓으라 하고 그 길을 따라 대별상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서신국마누라를 만난 할마님이 은실 같은 손으로 허리를 삼세번 쓸어 내리니 바로 ‘구애문(궁궐의 문)이 열리고 아이도 서신국마누라도 살려냈습니다.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6쪽.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6쪽.

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6쪽.

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06쪽.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을 알겠느냐

조선시대 고위 관리의 행차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는 대별상마누라의 등장은 상당히 고압적이고 위엄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용어의 하나였던 ‘마마’ 나 ‘마누라’ 라는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도 천연두에 대한 두려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본풀이 안에서 대별상이 삼승할망을 대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남존여비와 여성 혐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삼승할망의 태도는 공경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천연두’의 다른 이름인 ‘호명’을 주고자 행차하는 대별상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고운 얼굴로 ‘호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삼승할망의 태도는 ‘호명’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이는 천연두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대별상의 흥함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점지한 존재로서, 인간 자손들이 정해진 운명 안에서나마 그 상처가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산육신으로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삼승할망에게 대별상은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이지만, 삼승할망은 이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서신국마누라의 해산이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삼승할망을 찾아온 대별상은 삼승할망이 대별상에게 처음 했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삼승할망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삼승할망은 만족하지 않고 중의 차림새를 하고 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중의 신분인 미천했던 시대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모두 들을 수밖에 없던 대별상에게 그제서야 삼승할망은 말을 건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하늘 높고 땅 낮은 줄 아느냐?”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와 겸양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자연의 순리에 순응해야 하는 삶에 대한 태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분별한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독한 전염병과 기후 위기를 앓고 있는 요즘 더욱 새겨야 할 경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삼승할망의 가르침에 대별상의 뼈아픈 인정과 반성이 있는 후에야 서신국마누라와 뱃속의 아이는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마님의 은실 같은 손으로 서신국마누라의 허리를 삼세 번 쓸어내려
생명을 지켜냈던 것처럼 자연의 질서를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현대인들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재앙을 대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가르침
을 마누라본풀이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2013.

이능화, 『조선무속고』, 창비, 2013.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집문당, 1986.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